

2010년 3월 6일 사랑만이 너와 나 관계 결정된다(정향정)

인천 희망 교회 교역자 정향정 목사입니다.

2010년 1월 15일 금요 성령 집회 시작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글입니다.

주 예수가 사랑하니 주 사랑을 전하자. 사랑한다면 그 마음 다 내게 주어야지. 그 마음 다 나에게 주지 않으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 그 마음 비워 나를 가득채워라. 주 사랑하는 섭리사 나의 신부들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이 나에게도 중요하단다. 왜냐구? 나는 그 사랑 먹고 사니까. 주 정말 원하는 것 주만 생각하고 주만 말하고 주만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사랑만이 내 기쁨이다. 사랑하는 섭리인들아 진정 2010년 이 역사를 사랑으로 이루고 싶어. 그러니 그 사랑 더 이루어 가자.

주 사랑하는 섭리 사람들 나에게도 너희라는 희망이 있어 기뻐 정말이야. 진정 내말을 깊이 들어 내 마음 알아다오. 사랑해 주 예수.

찬양하는 내내 너무나 강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랑이 느껴져 입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시다. 심정은 타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시다. 그렇게 입만 병긋하며 심정 태우며 찬양하며 받은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 말해보자 주 예수가 강하게 자꾸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는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 전하노라. 사랑하여야 구원을 얻고 사랑을 하여야 주 재림을 맞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되도다. 사랑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사랑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 천국에서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나 예수와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도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주의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 주 생명 하늘 신부들을 천국으로 오게 하도다. 주의 사랑을 받아라. 받아야지 전한다. 전해야지 하늘의 뜻이 이뤄진다. 사랑해야 모든 사람들을 섭리에 오게 할 수 있도다. 사랑해야 주심정 전하게 되고, 사랑해야 사명을 하게 되도다. 하늘 가까이 하여야 사랑을 이루도다. 주의 사랑을 이루어라. 사줄게 많아도 돈이 있어야 절도가 아니듯이 주사랑 받고자 하는 자가 많아도 주를 중시하지 않는자, 자기 삶 가운데 주의 정신을 절도하는 것이다. 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나의 마음 가질 수 있다. 나의 마음을 가져다오. 나는 너희 한사람, 한사람을 기다리도다. 주 예수가 하늘 신부에게 전하도다. 하늘 사랑하는 사명자 주가 기대하는 하늘신부 가장 잘하는 자게 되어야해. 잘해다오. 주 정말 기대하고 기대해. 너희 모두 한사람 한사람을 정말 자세히 보고 또 보아서 나의

마음 맞는자 찾아 함께 하도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어머니 또한 그러하시다. 그래서 선생 먼저 이 지구 가운데 택했다. 그리고 나서 한명 한명 이루는 역사 시작되어 이 역사 이루어가고 있다. 성역의 역사, 이루는 역사, 주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하나님이 이를 역사. 그러하니 그 마음에 주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하여 하늘 뜻을 이루자. 주의 마음을 알라. 그 마음 알기 쉬워. 조금만 노력해도 내가 그 위에 역사하니까. 그런데 그 조금을 못하는 자 많아 사망으로 가고 있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 아프고 아파 그 마음 아프니 주 사랑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다오. 주예수 간절히 원하노라. 주 예수 하늘 아버지 대신에 전하도다.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라. 이 시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늘 신부, 나의 사랑아, 내가 너희의 신랑인줄 알라.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하여 너희를 만들고 영을 넣어 주었노라.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가슴 아픈 나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말을 잇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슴 아픈 하늘 심정 깨달아나 좀 사랑해줘. 전지전능 한 나 여호와가 부탁하노라. 내 아들의 사랑 느끼듯이 나의 사랑 느끼고 나를 불러다오.

간절히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하겠다고 고백하며 오늘이 하나님 영광을 날 마직날 인데 저희가 드린 영광 받으셨나요?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날 기간 동안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 보았노라. 사랑 고백하는 자 많고 많도다. 그 사랑 변함없이 지켜다오.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받았다. 사랑하는 섭리, 너희의 고백 다 간절히 원했고 다 받았도다. 나 사랑한다 하여줘서.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에게 고맙다 하십니까.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라 할 지라도 그 사랑 없이는 살수가 없구나. 사랑만이 너와 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니라. 제발이나 주사랑 기억하라.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섭리,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가 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도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주사랑 영원하다.